

편견·차별 여전...한센병 바로알기가 인식 개선 출발점



최근 한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상당부분 사라지고 있지만 자칫 과거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한센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등 예전에 비해 한센인에 대한 인권탄압은 사라지고 편견도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용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하 동행-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발간한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한센인을 차별 또는 기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인 10명 중 9명(92.5%)은 '그렇다'고 답했다. 차별 또는 기피의식이 없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또 한센인 중 38.3%와 35.4%는 각각 '승차거부'와 '거주자유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립소록도병원 김양빈 서무과장은 "소록도를 찾은 관광객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들과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꺼리는 이도 있다"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불편한 시각이 말끔히 사라지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 공존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계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국립소록도병원 등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마다 400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하는 등 한센인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교육 현장 등에서 한센인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들도 똑같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0명중 9명 "아직도 한센인 기피" 초·중등 교단 '공존 교육' 필요 정부 정책 인권·복지 고민할 때

특히 한센병의 경우 전염 위험성이 낮아도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부정적 인식을 갱신하고 동행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한센인에 대한 질병치료에 한해 지원정책을 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들과 공존하면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앞으로 한센인 정책을 펼 경우 긍정적인 부분은 넓히고 부정적인 요소는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사회 구성원들 역시 한센인들이 복지·문화·인권·생태·환경 등 부문에서도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고흥=주자경기자 gju@kwangju.co.kr



지난 28일 국립소록도병원 안에 건립 중인 한센 역사자료 전시관의 모습. 오는 17일 개관될 예정인 이 전시관(면적 2006㎡)은 상설·기획 전시실·수장고·도서관·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전시관은 향후 소록도 100년을 책임질 전시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통·치유...다시나는 소록도 100주년 '행복한 동행'까진 아직도 갈 길 멀어"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

"앞으로 소록도가 한센인의 힐링은 물론 외지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동행(同行)의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섬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장소'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달 28일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만난 박형철(55·사진) 병원장은 향후 소록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한센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을 말끔히 해소해 한센인과 비한센인으로서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우리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박 원장은 소록도의 지난 100년이 부침과 곡절 많은 아픔의 역사였다면 향후 100년은 치유·동행의 공간,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섬으로 바뀌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이 과거보다는 훨씬 적어졌지만 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며 "병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은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소통으로, 소통은 행복한 삶의 동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를 위해 (한센인과) 인위적인 관계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록도의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동행이 작위적으로 만들

어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관계는 향후 또 다른 아픔과 차별 등 각종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겨준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소록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외지인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신종 질병이 등장할 때마다 잘못된 인식이 세간에 퍼지면서 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의료진 가족까지 감염자 취급을 하며 따돌림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일화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년 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록도를 찾아 한센인과 교분을 쌓고 가사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한센인들이 평소 주변에서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한센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바람"이라며 "병원이 과거 100년이 질병과 아픔의 공간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치유와 소통의 장소로 새롭게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여행 이번이 기회다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야마구치 출발일 5/17, 5/22, 5/29

- ▶ [한정특가/선착순 8명]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299,000~
- ▶ [폭격] 야마구치 전통로칸 온천 여행 4일 ₩539,000~
- ▶ [실속] 기타큐슈 온천여행 + 후쿠오카 1급 4일 ₩499,000~
- ▶ [부관철회/특가] 북큐슈 미야자마,이와쿠니 3박4일 ₩399,000~

항공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후쿠오카 **팬스타로 떠나는 오사카, 나라, 교토**

- ▶ [특가] 에어부산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2박 3일 ₩599,000~
- ▶ [팬스타] 오사카, 나라, 교토 4박 5일 ₩599,000~

포 함 : 왕복 선박항공, 유류세, 부두세&공항세,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광주-부산 국내 수송비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 | | | | | |
|-------------------|------------------|------------------|------------|------------------|------------------|
| 울란바토르, 테를지 | 3박5일 ₩ 1,499,000 | 출발일 : 7/28, 8/11 | 트래킹 | 3박5일 ₩ 1,499,000 | 출발일 : 7/28, 8/11 |
| | 4박6일 ₩ 1,649,000 | 출발일 : 8/1 | | 4박6일 ₩ 1,599,000 | 출발일 : 8/1 |
| | 4박6일 ₩ 1,599,000 | 출발일 : 8/6 | | 4박6일 ₩ 1,549,000 | 출발일 : 8/6 |

불포함 : 싱글차지, 호텔(2인실)/케르(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맛차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FM-상해항공]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북파·용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폭격] ₩1,250,000~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폭격] ₩1,340,000~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폭격] ₩1,390,000~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폭격] ₩1,390,000~
▶ 불포함 :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TW-티웨이항공]

▶ 출발일 7/20~8/27(수, 토 출발)
▶ 북파·용정·도문 4일 [실속] ₩1,040,000~ [폭격] ₩1,140,000~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폭격] ₩1,240,000~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190,000~ [폭격] ₩1,290,000~
▶ 불포함 :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 - 북해도(삿포르) 전세기 취항

▶ 출발일 7/31, 8/4, 8/8, 8/12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르 5일 ₩1,599,000~
▶ 삿포르 1일 자유일정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르,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3대 개요리 포함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르,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3대 개요리 포함
▶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티,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황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티,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매너티,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동행: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여행상품:1인/국내상품:5인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 상거 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체결 ● 예약시 계약서(회소수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새누리 원내대표 정진석·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충청 출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사진) 당선인이 선출됐다. 원내대표 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의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으로 결정됐다. 4·13 총선에서 정당선인인 4선(連), 김 의원은 3선에 각각 성공했다.

'정진석·김광림 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9표를 얻어 '나경원·김재경 의원 조'(43표)와 '유기준·이명수 의원 조'(7표)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애초 정 당선인과 나 의원 간 '박빙 승부'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경선은 비교적 큰 표차로

승부가 갈려 결선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정 신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외 당선인' 신분으로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사를 통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며 "의원 한분 한분이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집권여당의 공적 사명감으로 뭉쳐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합의추대

정의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3선이 되는 노회찬 전 대표(경남 창원 성산)가 3일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만장일치로 노 전 대표를 새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고 한창민 대변인이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양대 간판으로 꼽히는 노 전 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당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3년 '안기부 X 파일' 속 '떡값 검사' 실명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듬해인 2014년 7·30 재보선 당시 동작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으나 패배했으며,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